

전북 의원들 예비후보 등록 잇따라

총선 앞두고 선거운동 돌입 현재 도내 지역구 예비등록 현역 국회의원들은 총 5명 '인지도 쌓기 위한 전략'

오는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1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북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현역의원은 총 5명이다.

지역구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신영대·익산갑 김수홍·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군산 출마예정자인 군산 김의겸 의원(민주당), 전주을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등이다.

통상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등을 병행해야해서 정식 후보자 등록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가 변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 열풍은 치열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격전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어깨차 착용조차 등 선거운동을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면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에서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추진 성과와 2단계 신규산업단지 후보지와 관련한 간담을 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도 이유다. 이러다보니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지역구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군산의 경우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 익산갑의 경우 김수홍 현 의원과 이춘석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는 곳이다.

정읍·고창의 경우 윤준병 의원과 더불어 전 국회의원 유성엽 등

현직과 현직, 전직과 현직의 빅 대결이 관심이다.

또 여당인 정운천 의원의 경우 '전북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정주를 선거구로 야당인 진보당 현역 의원과 민주당 후보군들과 인물 대결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돌입해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올려 본 선거 이전

유리한 고지를 밟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격전지로 점쳐지는 곳에서의 현역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조금이라도 더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출마예정지에 대한 믿음을 잡기 위해 현역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스

“지방소멸·저출생·초고령화 국가책임 시스템 구축 절실”

민주 유성엽 예비후보

제22대 총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방소멸·저출생·초고령화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보조만 하는 현재의 정부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저출생·초고령화에 국가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현재의 지방소멸·저출생·초고령화 위기는 많은 국가적 예산 투입에도 그 형식이 보조에만 급급하고 주먹구구식이어서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및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은 물론 원인과 결과를 고려한 적확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해 기회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각 지방으로 분산배치 해 과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지금보다 더 이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갖고 펼쳐낼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국가적 노력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등한 진로의 기회, 차별받지 않는 다양성의 보장, 선택에 따른 국가적 집중투자 등이 있어야 사회건전성이 향상되고 국민의 삶까지 행복하



게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통해 '나로부터 이어진 또 다른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미래'이며

세상의 미래'라는 의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선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 지속력을 높여 국가 경제를 살려냄으로써 목적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와 가족 위주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키는 등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 역시 국가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정치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공직자에 이은 정읍시장, 3선 국회의원의 다양한 경험과 정치력을 활용, 지방소멸·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체계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부터 대폭 확대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가오는 새로운 흐름에 주목해 지방과 중앙이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특별취재반

4월 국회의원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정읍·고창의 봄 앞당길 것”

민주 윤준병 의원, 재선 도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5일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17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정읍시·고창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민들께 '서울의 봄'을 되찾아 드리겠다 하는 시대적 사명과, '고창·정읍의 봄', '정읍·고창의 봄'을 앞당기겠다 하는 지역의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빼앗긴 정권을 되찾느냐', '우리 지역이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판가름 하는 중대한 선거”라면서 “민

당이 팔팔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읍고창의 10년 이상 묵은 숙원과제 해결, 정부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지역의 국비예산 확보,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법률 제정·시행 등으로 윤준병의 초선 4년이 그전의 3선 12년보다 유능함을 이미 성과로 입증했다”며 지난 4년의 성과가 정읍고창에 뿌려진 새로운 변화의 씨앗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제 제대로 짝을 띄우고 잘 키워서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며 정읍·고창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 △정읍경향서·정읍우체국의 이전과 고창타미널 현대화를 계기로 정읍·고창 도심재생사업 추진



△정읍을 제약산업의 호남중심지로 키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고창 삼성전자 물류센터,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형 RE100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 육성 △이동통신사 등 어린이 의료 기능 강화, 주5일 경로당 점심 제공, 국립정읍유수체원 조성 등 복지정책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오창속 남원시의원,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발의

남원시의회 오창속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를 통해 남원시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시책 추진을 위해 제정 및 시행한 자치법규를 자체 구성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남원시장에게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오 의원은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 국가보훈법령에서 직접 규율해 줌으로써, 남원시가 제정했던 '남원시 대간절차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가 사문화되었다며 폐지를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법원 법인인감무인발급기 설치 서두를 것”

민주 정희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국회의원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일상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 빠른 공약인 소확행 공약 1호로 완주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제시했다.

완주군에는 4,600여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전주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정 예비후보는 기업인들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완주군이 아닌 전주시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기업인들의 편의 증



진과 애로 해결을 위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완주군청 민원실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완주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 증명서류에 대한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운영 시 필요한 서류를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발급받아 시간과 이동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특별취재반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금길

설명절 선물 대잔치

진안고원을 할인행사 1. 24. ~ 2. 2. 까지(10일간) 진행됩니다.

올 설에는 청정자연 진안고원의 빛깔고운 먹거리
진안 농·특산물을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세요!

강산도 영동조합법인 * 수삼 1kg 600g(9~11월) ₩480,000- ₩22,800(24%) * 수삼 2kg 750g(9~11월) ₩960,000- ₩34,200(24%) * 수삼 3kg 750g(9~11월) ₩1,440,000- ₩51,600(24%)	유진양육합 * 육포 1kg ₩47,950- ₩35,810(24%) * 육포 2kg ₩95,900- ₩71,620(24%) * 육포 3kg ₩143,850- ₩107,430(24%)	(유)버섯아루 * 건초 도토리버섯 500g ₩11,900- ₩9,040(24%) * 송이버섯 350g(고창) ₩14,900- ₩11,324(24%) * 건초 도토리버섯 350g(고창) ₩12,900- ₩9,804(24%)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5kg 선물세트: 명물 사과 1박스 ₩1,000,000 * 10kg 구입시 ₩1,000,000 * 10kg 구입시 ₩1,000,000	수제정과와 수제참고 * 도라지정과 500g ₩65,000 * 도라지정과 + 인후단 500g/14개 ₩75,000 * 타르트와 500g ₩65,000 * 타르트와 + 인후단 500g/14개 ₩85,000	진안고원 새박상 * 새박상 100g ₩10,000- ₩7,500(24%) * 새박상 200g ₩20,000- ₩15,000(24%)
전북인삼농협 * 6년산 홍삼농축액 240g ₩179,000- ₩120,000 * 4개 구입시 ₩440,000 * 10개 구입시 ₩1,100,000 * 6년산 홍삼배리코 플라스티크 15g*30포 ₩55,000 ₩39,000 * 4개 구입시 ₩140,000 * 10개 구입시 ₩300,000	마이1산한과 * 한방유과 + 풍유과 1.2kg ₩20,000 * 2.4kg ₩40,000 * 한방해구니세트 중 ₩47,000 / 대 ₩60,000	완주군농협 * 마이1산농협보화야들 ₩92,000- ₩69,000(24%) * 마이1산농협보화야들 ₩184,000- ₩138,000(24%) * 마이1산농협보화야들 ₩276,000- ₩207,000(24%)
수환수육상 * 수환수육 상 250g ₩4,000- ₩3,000(24%) * 고대수육상 250g ₩9,000- ₩6,750(24%)	소목채용 * 채용 상 100여개 ₩4,000- ₩3,000(24%) * 채용 중 150여개 ₩8,000- ₩6,000(24%) * 채용 대 200여개 ₩12,000- ₩9,000(24%)	대평주가 * 대평주 375ml*3개 ₩20,800- ₩15,600(24%) * 대평주 375ml*6개 ₩41,600- ₩31,200(24%) * 대평주 375ml*9개 ₩62,400- ₩46,800(24%)